

# 신짜오 다투스

이달의 날씨 : ☀️ × 11 ☁️ × 10 🌧️ × 10 평균기온 : 30°C 평균습도 : 66%

## 유치원 졸업식

4시부터 분주하다. 졸린 눈을 비비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끌어낸다. 평소의 토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날이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유치원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5시 반에 첫 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 쉰 몸으로 유치원으로 향한다. 1시간 반 동안의 덜컹거리는 긴 여정을 마치고 늦지 않게 7시에 도착한다. 평소라면 멀미에 다들 지쳐있는 상태겠지만, 오늘은 지쳐있을 시간도 없다. 분주하게 의자를 셋팅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여자단원들은 빌린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나오고, 남자단원들은 손수 만든 코스튬을 챙겨 입는다. 그리고 곧 아이들의 졸업식 행사가 시작된다.

2세반 꼬마 친구들의 노래가 끝나고, 4세반 친구들은 춤 솜씨를 뽐냈다. 그리고 드디어 5세 졸업반 아이들의 패션쇼가 시작되었다.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의상들과 아띠들이 땀 흘려가며 만든 무대 배경이 빛을 발한다. 아이들의 깜찍함에 학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신다. 마지막 피날레 워킹까지 마치고, 곧 아띠들의 순서가 되었다. 서툰 베트남어 솜씨로 자기소개를 하고, 베트남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다. 착한 유치원 친구들은 따라 불러준다. 다음엔 그 베트남어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더 부르고 마무리로 올챙이송을 선보인다. 마무리로 단체 인사를 하고 학부모님과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뒤로 들어간다. 더운 날씨와 부직포로 만든 코스튬 탓에 단원들은 땀범벅이다. 하지만 무대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얼굴은 그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져 있다.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상장과 유치원에서 주는 선물을 증정하고, 아이들의 졸업 노래를 들으며 선생님들과 함께 눈물도 흘리고, 못내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려 노력한다. 졸업식 준비를 하느라 들었던 시간에 비하면 아이들의 졸업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렸다.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서운한 졸업식이 마침내 끝났다.



김민주 기자 wansheong@nate.com

**HIT** 그 날이 왔다 - 1p

요즘 '가장 핫한' 그들의 하루 밀착 취재 - 2~6p

**HOT** 이달의 웹툰  
동물의 왕국 - 3p

**[특별편]** 내 안의 너 - 8~10p

☆☆신짜오 다투스☆☆  
후기를 보내주세요!!

'주관적인' 선정을 통해 베트남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짠 예쁜 팔찌를 보내드립니다.  
jumptothehigh@daum.net

※편집총괄  
김민주, 신병철



# 주리의 하루

새벽 5시.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난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다 보면 어느새 50분은 후딱 지나가, 아침을 먹으러 간다. 여유를 부리며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제 시간에 유치원에 도착하기 위해선 서둘러야 한다. 8번 버스를 타고 suoi tien에 도착해 602번이나 604번 버스로 갈아타고 유치원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 45분 전후. 숨을 돌리고 각자의 교실로 들어간다.

나와 함께 하는 아이들은 4살, 한국 나이로는 5살 아이들이다. 첫 만남에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맞이하던 얼굴들. 하지만 지금은 나를 맞이해 주는 표정이, 목소리가, 손짓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내가 교실에 올 때면 아이들의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이다. 다 먹은 아이들 옆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꼬 리!(co Li!)"라고 외치며 다가오는 그 모습에 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손등에 그림을 그려 달라든지, 사진을 찍어 달라든지, 보리보리쌀과 같은 손장난을 같이 하자든지, 소꿉놀이에서 손님이 되어 달라고 손을 잡고 얘기할 때면 피곤해도 '그래! 하자!'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잠깐 놀다 보면 알파벳 쓰기 시간이다. 연필을 짊어지고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가는 모습이 한석봉 저리가라다. 글씨 하나에 무슨 정성을 그렇게 많이 들이나 싶기도 하지만 집중하는 모습에 나도 덩달아 집중해서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 주는데, 이때가 되면 마치 내가 모이를 주는 엄마 새가 된 것 같고, 아이들은 받아먹는 아기 새가 된 것 같다.

점심을 먹고선 낮잠을 잔다. 하지만 잠은 자지 않고 옆으로 돌아누워 재잘대는 아이들. 할 얘기가 뭐 그리도 많은지. 그러나 어느새 지쳐 쓰러져 자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다. 오후시간도 오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알파벳 쓰기를 하거나 체조나 그림그리기를 한다.

하지만 유치원 활동에서 마냥 웃음만 있는 건 아니다.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행동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체벌과 식사다. 내가 알던 유치원과 사뭇 달랐다. 때리는 횟수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한국보다 훨씬 많았던 점, 배가 남산 만하게 나왔는데도 꼭 2그릇씩 먹이는 식사에 놀랐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싶었다.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봤을 땐, 내 표정이 그리 좋지 못했나보다. 선생님들께서 '왜 표정이 좋지 않냐'고 물으셔서, 여긴 교실에 아이들 수가 많아, 언성을 높여야 할 때 높이지 않으면 통제가 힘들다고 했다. 식사 때도 배가 불러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주는(먹여주는) 것에 대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베트남의 현지 교육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것을 적용시켜 바라본 내 잘못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 한 구석은 찝찝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난 여전히 흥안 아이들이 좋고 선생님들이 좋고 유치원이 좋다. 활동을 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더 부대끼고 싶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 아이들을 위해 난 뭘 해야 하나.

4시.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건넨다. 땀 비 옛.

이주리 단원 [silvia129@naver.com](mailto:silvia129@naver.com)



# HONG AN KINDERGARTEN DAYIL LIFE

<만 2세 팬더반>



<만 4세 토끼반>



<만 3세 히린반>



<만 5세 호랑히반>



<만 3세 강하치반>



우리는 행...행복합티타 ♡  
정 말 !!!!!!!!



셀카주리  
silvia129@naver.com



지랑히  
youjio621@naver.com

## 지향이의 하루

주말 후유증과 함께 시작한 월요일.

버스는 등교하는 학생들로 만원이었고, 나는 기사아저씨와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서있었다. 내가 잡은 손잡이 위에는 'cam hut thuoc'(금연)이라는 반가운 표시가 적혀있었다.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귀에 반가워했던 것도 잠시. 버스기사 아저씨는 교통체증에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기사아저씨의 담배연기는 나를 시작으로 버스 안쪽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비좁은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기본 매너가 영 팽 아닌가?

아침부터 매너 없는 기사아저씨 때문에 힘찬 월요일을 시작하려는 나의 의지에 살짝 금이 가버렸다.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아닌가!

기분을 다잡고 우리 반 귀염둥이들을 만나러 힘차게 계단을 올라갔다.

주말동안 이발을 했는지 뽀뽀 머리가 된 문본이 한 손에 뭔가를 들고 나를 향해 밝은 미소로 달려왔다. 나는 부드러운 뒤통수를 한번 쓰다듬어줘야겠다 생각하며 문본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갔는데. . . 문본 손에 든 것은 다름 아닌. 바. 퀴. 벌. 레.

그것도... 검지와 중지를 합친 크기의 큰 바퀴벌레!!

베트남에 와서 4번 정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바퀴벌레의 밀창을 본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치며 갔다 버리라고 소리쳤다.

다행히 꼬 짜우 선생님이 오셔서 문본은 손에 든 바퀴벌레를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안심하며 교실에 있는데 악동 한 여음이 쓰레기통에 버린 바퀴벌레를 흔들면서 나를 겁주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당황해 베트남어가 아닌 한국어로 '하지마, 갖다버려' 라고 소리치며 복도로 나왔다. 복도 중간에서 한숨돌리자 어디서 났는지 이번엔 세명의 아이들이 각자 한 손엔 바퀴벌레를 들고 나를 향해 웃으며 달려들었다. 나는 2층에 있는 성규오빠와 민주를 찾아 내려갔다. 아이들이 바퀴벌레를 들고 겁을 주면서 나를 놀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럽고 무섭고 짜증나서 눈물이 났다. 난 한동안 계속 울었다. 머리도 아팠고 기운이 쪽 빠졌다.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내가 재밌었는지 애들은 ㅋㅋㅋㅋ했다. 아이들은 수돗가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바퀴벌레에게 수영을 시키며 갖고 놀았다. 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꼬 짜우 선생님께서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혼냈지만 나는 오늘이 아닌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아이들의 장난이 무서워서 걱정이 됐다. 이 아이들에게 바퀴벌레는 재미 같이 흔한 존재 일텐데 나에게 바퀴벌레는 체감크기가 곰처럼 크게 느껴진다. 아이들은 아무생각 없이 나와 놀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그냥 장난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벌레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는 있지 않은가? 나에게 그 두려운 존재는 바퀴벌레다. 앞으로 남은 유치원 기간 동안 아이들이 또 장난을 칠까봐 두렵다.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겁먹는 내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다. 나는 바퀴벌레가 무섭다 정말.



유지향 단원 youji0621@naver.com



# 민주의 하루

2세반 아이들은 귀엽다. 얼굴은 젖살이 포동포동하고, 눈은 새까맣고 반짝거리고, 단풍잎 같은 것을 손이랍시고 달고 다니는데다가, 목소리는 삐약 삐약 우는 병아리 같다. 게다가 금상첨화로 3등신이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는 손으로 그들의 토를 받아낼 수 있고, 똥 짠 바지도 기꺼이 맨 손으로 빨 수 있다. 지역 훈련 때 처음으로 아기 기저귀를 가느라 찢찢맷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오줌이며 똥이며 토며 코딱지며 침이며 몸에서 나오는 온갖 분비물들에 별 감흥이 없어졌다.

게다가 조그마한 것들이 어찌나 개성이 강한지 관찰하고 있다 보면 신기할 정도다. 비록 세상을 산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자 취향이 명확하고,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또 웃긴 건 자기들끼리도 엄연히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사실이다. 장난감을 뺏겨서 울고 있는 친구를 대신해 맞서 싸워주기도 하고, 대신 뺏어서 돌려주기도 한다. 선생님한테 혼나서 울고 있는 친구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나기도 한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꼬 미! 꼬 미!>를 외치며 품에 달려드는 아이들은 힘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다. 나는 아이들에게 정도 많이 들었고 서서히 유치원에서의 활동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부터 내 뇌는 활동을 중단한 듯싶다. 한국 동요와 율동을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울면 달래고, 어르고, 혼내고, 토하면 등 토닥여주고, 치우고, 콧물 닦아주고, 나의 몸은 항상 바쁘지만 내 뇌는 바쁠 이유가 없다. 아이들은 예쁘지만 나는 이 활동에 점점 의문을 품어가고 있다. 나는 보육활동을 하러 베트남까지 왔는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이지, 나의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아시아적 감수성>과 이 활동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요 며칠 전부터 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는 생각이 하나 있다. 유치원 활동을 시작하며 느낀 것인데, 나는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시선이 지금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2세반의 아이들은 나에게 그냥 '아이들'이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따로 붙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 대학생들은 나에게 그냥 '사람들', '대학생들'이었던 적이 없었다. 항상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대학생들'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단 한번도 '베트남 아이들'이라고 느낀 적이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앞에 항상 '베트남~'을 붙여온 것일까?

요즘은 이 고민을 하느라 적어도 뇌가 완전한 활동 중단 상태에 있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생활했기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 2세반 꼬꼬마들에게 고맙다. 어서 월요일이 와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 우리 랑개, 사과불이, 찌, 귀요미, 리틀 유승준, 성질 못된 예쁜이, 짹이, 왕언니, 니, 찌땀, 쾌변이, 아저씨, 깡이, 밍상이1, 밍상이2, 울보, 예쁜이 린이, 욕심많은 '느키'... 지금쯤 다들 예쁜 꿈꾸며 쉹쉹 자고 있겠지? 히히 :D 잘자렴 예쁜이들..

김민주 단원 wansheong@nate.com



## 성규의 하루

한 시간 반의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우리의 활동지 Hong An 유치원. 오늘로써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세 살(한국나이로는 네 살)아이들을 맡았다.

담당 선생님은 나와 동갑이었고, 그래서 빨리 친해지려고 cõ(여 선생님을 지칭)라고 부르기 보다는 ban(친구)이라고 부르며 빨리 친해졌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자꾸 사전을 뒤적였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나에게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길 했고, 나는 한국어와 영어공부 열심히 하라고 되돌려 줬다. 나도 영어 못하는데^^

유치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갈 때쯤 어느 아이가 내 다리에 툭하고 앉았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려는데 우리 반 아이가 아니었다.

옆의 민주네 반(2살)에서 우리 반으로 건너온 것이다. 옆에서 보던 우리 반 선생님께서 나를 가리키면서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는 "bõ(아빠)" 라고 대답을 했다. 거의 처음 보는 아이가 나에게 와서 아빠라니ㅋ

우는 아이들, 달려드는 아이들, 때리고 싸우는 아이들에 치여 다른 반 아이들을 볼 겨를이 없었는데, 웬지 그날 이후부터 다른 반 아이들에게도 눈이 가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은 선생님들과 같이 밥을 먹는 날이다. 일부러 장난을 쳐가며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좀 더 베트남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귀찮음이 공존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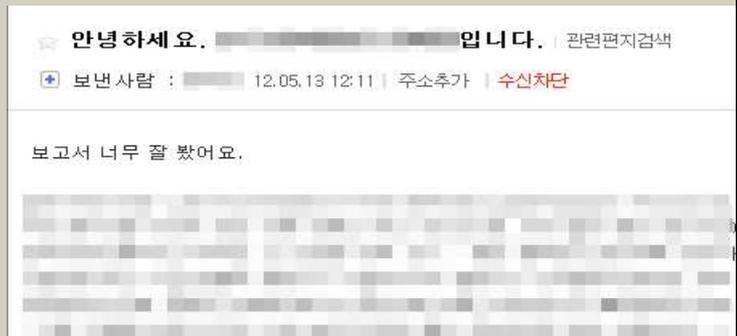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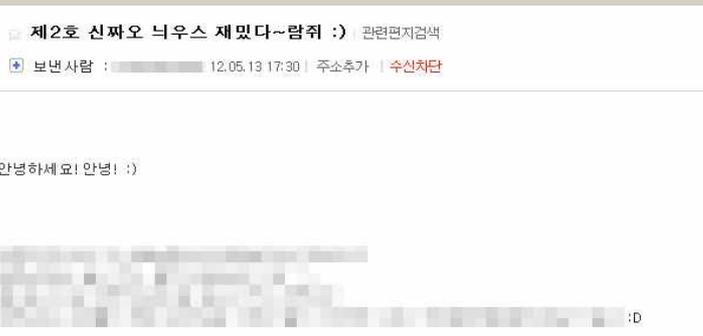


심성규 기자 sgsim23@nate.com



## 신짜오 다크뉴스 창간호 후기 당첨자

축하합니다!! soyo0000@gmail.com님, ske000@gmail.com님 보내주신 후기는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짜오 다크뉴스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당첨안내는 보내주신 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찌가 탐나는 사람 여기 모두 모여라!



# <특별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심성규 단원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본다.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만 훌륭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베트남에 온지 어느새 세 달.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무엇 하나 얻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버린 것은?

베트남에 오기 전 막연한 걱정거리. 음식은 입맛에 맞을까?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등등 오기도 전에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많이 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걱정들은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기도 했고, 쓸모없는 걱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동안 이러한 걱정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다. 내 안의 욕심, 게으름. 참 버리기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날 이렇게 바꿔준 베트남은 나에게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다.

<나는 누구인가>

이주리 단원

이름 이주리. 나이 24. 성별 여. 직업 휴학생. 현재 라온아띠 7기로 베트남에서 활동 중. 나를 객관적 나타내는 말들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국내훈련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해 온 주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못 찾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뻔하다. 나는 나다. 상대방이 보고 있는 나.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마주보고 있는 내 안의 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도 모르고, 나는 나대로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 나는 내가 잘 알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겐 나도 포함된다-에겐 답을 찾기 힘든 질문이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선 생각을 피하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가는 이 질문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대개 활동을 하며 질문이 떠오르기 보단 활동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나 밤늦게 또는 주말에 개인 시간을 가질 때 문득 떠오른다.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게 되는 상황이 힘들다.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기간은 5개월. 그 중 반이 넘게 지나갔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러나 조금해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활동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김민주 단원

국내 훈련 첫날 받았던 이 질문을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3개월 전, 나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했다. '독립'과 '교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럴듯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 찾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어렵פות이 '이거 아닐까' 유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핀트가 벗어난 대답인 것은 또 아니다. 독립도 맞고 교감도 맞다. 다만 독립과 교감이라는 정확한 단어로 정의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조금 더 나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서 온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관점, 나의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싶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머리로만 접해왔다.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이론들만 가득 차 있었으니, 당연히 나에 대한 확신이란 게 있을 리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라온아띠는 나에게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베트남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베트남을 잘 모르겠다. 앞으로 2개월을 마저 살아도 '알 것 같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베트남에 대한 내 편견과 잘못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수그러진 것과는 별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이 과연 진짜 베트남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처음의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이란 것이 얼마나 믿을만하지 못한가를 깨닫고 있다. 자칫하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나는 예전보다 더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에 있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다면, 무엇으로 채워야하는가? 내 생각에, 내 관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 정반대되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애써 피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관점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그 전에 썼던 글과 비슷하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비춰보자면, 확신은커녕 소신도 없어질 판이니 스스로 보기 한심한 부분도 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 왔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모르니 갑갑하다.

<나는 누구인가>

신병철 단원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가족과의 주말 외식을 포기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미루고. 그동안 2번의 단기해외봉사, 2년 동안의 해외여행으로는 채울 수 없던 무언가를 기대해 이곳에 왔다. 또 정해진 일상의 권태를 떨쳐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다. 그렇게 지금 전체 일정의 반을 보낸 지금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단기해외봉사는 정해진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주고, 나눠주고, 도와준다(실제 현지인들은 도움이라 생각지 않지만). 이렇게 피동적이고 자기만족적인 활동이라면 라온아띠는 우리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 또 은근슬쩍 봉사활동 경험을 자랑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봉사'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봉사란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생각한다.

다음으로, 자극에 대해서.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군대, 반 년간 홀로 해외여행과는 또 다른 면으로). 사소한 내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게 되고, 동시에 새로 알아버린 또 다른 세상에 벅찰 정도로 자극을 받고 있다. 다양성, 인권, 존엄성 등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교육받을 의무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여공.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우는 인력거꾼. 우유가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유치원 아이들. 신호등이 없어 위험하게 오토바이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이곳에서의 나는 누구일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느 부분까지 관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까. 내가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인간에게 마땅한 절대적인 가치는 있지 않을까.

감당하기 힘든 이 자극을 외면해야할지, 안고 가야할지, 어떤 식으로 감당할지 이 나라에 온 것이 차라리 후회가 될 정도로 고민하게 된다.

돌아가서의 나는 누구일까.

아직 남은 일정의 반을 마치고 내 생각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고민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길 바란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활동이 반이 지난 지금.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조금 엉뚱하다.

-나는 베트남에 가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무사히 5개월을 잘 지내다가 더 큰 생각과 마음을 갖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베트남 활동이 반 정도 지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유치원 활동이 2달이라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해 싫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유치원활동을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받지 못 할까봐 였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만큼 슬프고 외로운 일이 있을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여주는 진심만큼 아이들 또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울고불고, 떼쓰고 짜증내고 영악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다. 딱 잘라 말하면.

순수한 얼굴을 하고 영악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싫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아이들도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나는 이 활동에서 아이들과의 교감 없이 겉돌기만 하고 외로운 2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아이들을 만나던 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진심을 다 해보자. 영악한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날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싶었다.

비록 언어는 달라 대화가 길게 이어지진 못했지만.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 대 아니다.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식이 아닌 진심인 것 같다.

매일 아침 교실로 올라가면 나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몇몇의 아이들.

나를 만날 때마다 손바닥을 치켜 올리며 하이파이브 하려는 아이들.

뭐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통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나는 매일매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베트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것과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조금씩 바로 잡힌 것.

처음부터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 속에 베트남을 가두고 있었는지 조금씩 인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선입견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